

풍암호수 수심 1.5m로 낮춰 수질 '자연정화'

주민협의체·광주시·민간사업자 갈등 1년 3개월 만에 최종 합의
도심 속 명품 공원 탈바꿈...중앙공원 1지구 공원 조성사업 탄력

1년 넘게 '원형 보전'을 놓고 논란과 협의가 진행되던 광주 풍암호수 수질 개선사업과 관련, 광주시와 주민협의체 등이 최종 합의하면서 사실상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풍암호수 원형보존 요구로 난항을 겪어왔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원 조성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풍암호수가 명실상부한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시청에서 풍암호수 수질개선 주민협의체 위원과 광주시 관계자, 민간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 참석한 가운데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대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1년 3개월여 간 합의를 찾아지 못하고 논란을 빚어왔던 원형보존 수질개선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안에 대해 주민협의체가 오는 31일 전체 주민 동의를 얻는 절차만 남았다. 주민 동의를 얻을 경우 그동안 원형보존과 수질 개선을 놓고 벌여온 논란은 끝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 협상안의 핵심 내용은 풍암호수 바닥을 일부 성토한 뒤, 지하수를 비롯한 외부의 맑은 물을 유입하는 자연정화 방식을 사실상 수질개선안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논쟁의 핵심이었던 담수량의 경우 현재 45만에서 15만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 역시 현재 평균 6m 안팎의 수심을 1.5m로 줄이며 호수 내 Y형 비점배제 배수박스 매설해 준공 기준 3급수의 수질을 상시 유지하는 방안이 주민협의체가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주민협의체에서는 호수의 수면적을 최대한

현행 호수의 크기로 유지할 것과 저수지 바닥 전체에 강자갈을 깔고 청소작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미광장 아파트 앞에 위치한 장미농원을 호수공원 인근으로 확대 이전하고, 호수 주변 데크길과 맨발 뿔길 등 산책로 조성도 요구했다.

당초 광주시는 풍암호수를 매립해 수심을 1.5m로 낮추고, 수량도 15만을 유지해야 한다고 고시했으나, 주민협의체의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 결국 광주시는 주민협의체가 수정 요구한 수심 2.8m유지, 수량 29만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까지 고시했지만, 협의체 내부 갈등으로 이마저 부결되면서 그동안 합의를 찾아지 못하고 논란만 지속되어 왔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원형보존에 대한 주민협의체의 요구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강기정 시장 주재로 서구지역 전·현직 국회의원과 서구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풍암호수 수질 개선 사업 관련 설명회를 갖는 등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설득해가면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번 협의에서 결실을 맺었고, 앞으로 공원조성 사업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공원조성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시행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관계자는 "늦었지만 지역 주민협의체와 협력해 풍암호수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설계변경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3일 오후 풍암호수 수질개선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광주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등이 참여한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대한 전체회의'는 호수 바닥을 높이고, 외부의 맑은 물을 유입하는 자연정화 방식을 풍암호수 수질개선안으로 합의했다. /니맹주 기자 mjna@kwangju.co.kr

“감염 소만 살처분·백신 의무화” 여야, 소 렘피스킨병 대책 촉구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렘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흘만에 17건으로 늘어나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렘피스킨병 확산이 빠른데다, 발생 지역도 경기, 충남, 충북 등으로 번지면서 23일 오후 5시 현재 1075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전국 확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당국도 감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여야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렘피스킨병'의 감염 차단과 함께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확진된 소의) 폐사

율 자체도 10% 미만으로 미미하다"면서 "감염된 그 소에 대해서, 축산물에 대해서 그것만 살처분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확진 농가의 소 전체를) 살처분하다 보면 보상금 문제가 대두된다"면서 "축산 농가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렘피스킨병 '비상'...해남 축산농가 가보니 ▶6면

KIA, 무색무취 야구 '명가' 자존심 무너져 ▶19면

굿모닝 예향-괴테 연구자 전영애 교수 ▶22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2015년 그리스에서 렘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렘피스킨병이 갑자기 생겨, 여러 가지 방역 당국에 꽤 노력이 많이 있을 텐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을 해 달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렘피스킨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백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3주가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확진된 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잠재성장률, 올해 2% 밀돌고 내년 1.7%

OECD 추정치, 저성장 굳어질 듯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밀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해 미국보다도 오히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잠재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산업 구조 혁신 등의 특단의 대책이 보이지 않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값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처음 2%를 밀돌고 내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떨어진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1.8%),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3%) 순이었다. 내년에는 미국(1.9%)이 0.1%포인트(p) 높아지고, 일본(0.2%)은 0.1%p 떨어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승환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맛의 고장 광주 식문화 축제

제30회 광주김치축제

장소 상무시민공원 일원

일자 2023. 11. 3. (금) ~ 11. 6. (월)

2023 광주 푸드페스타

장소 상무시민공원 일원

일자 2023. 11. 3. (금) ~ 11. 5. (일)

오메나